영화 촬영지로 떠오르는 '남해군' 극장가에도 눈도장

칸 영화제 감독상 박찬욱의 〈헤어질 결심〉에 이어
배우 이정재 감독·제작의 영화 〈헌트〉에도 등장
11월 김한민 감독의 영화 〈노량〉도 개봉 예정

남해군 아난티 남해 리조트 앞 갯바위에서 촬영한 영화 〈헤어질 결심〉 속 장면이다. 사진 CJ ENM

요즘 극장가에서 남해군 인기가 뜨겁다. 영화 속 매력적인 장소로 남해군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몰이 시작점은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로 뜨거운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배우 박해일과 대사 "마침내"의 변주를 보여준 탕웨이의 캐스팅으로 화제가 된 영화 〈헤어질 결심〉이었다.

2022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경쟁 부문에 초청돼 감독상의 영예를 안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서 안개 속 신비로운 도시인 가상의 공간 '이포'의 배경으로 '남해'가 그려진 게 인상적이다.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를 읊조리던 탕웨이의 목소리가 낭창낭창하게 흐르던 바다가 아난티 남해를 품고 있는 남면 덕월리 바닷가 근방이다. 송서래 역할을 맡았던 탕웨이가 도피처로 삼았던 전용 수영장을 갖춘 대저택은 아난티 남해 리조트 내 더 하우스다. 아난티 남해는 골프뿐 아니라 레스토랑과 서점, 편집숍 등이 갖춰진 복합문화공간을 지닌 휴식처로 꾸준히 인기가 많은 곳이다. 이와 함께 서면 소재 한옥펜션 고운재도 고즈넉하고 고요한 남해의 풍경을 잘 나타내기도 했다.

장소뿐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탕웨이의 '남해 막걸리 사랑'도 화제다.

한 인터뷰에서 동동주를 많이 마시냐는 질문에 "아직 많이 먹는다. 동동주랑 막걸리를 좋아한다. 특히 남해 막걸리를 좋아한다"고 답한 것. 그러자 옆에 있던 박해일이 "영화 〈헤어질 결심〉 촬영 때 남해군에서 촬영이 있었다. 거기에 노부부께서 막걸리(서상 막걸리)를 주조하셨는데 그걸 발견한 탕웨이가 너무 좋아했다"고 덧붙였다.

영화 촬영이 벌써 2년 전 일이다 보니 그 사이 막걸리를 제조하던 노부부의 건강상 이유로 현재 서상 막걸리의 생산은 중단됐지만 입소문을 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개봉 8일 만에 220만 관객 돌파
영화 '헌트'에서도 남해 등장

영화 〈관상〉에서 역사상 가장 섹시한 수양대군으로 카리스마를 보여준 배우 이정재가 4년간 공들여 개봉한 영화 〈헌트〉의 기세가 놀랍다. 영화 〈헌트〉는 제5공화국 시절인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각색실화(팩션·faction)'이다. 조직 내 숨어든 스파이를 색출하는 이야기로 '사냥꾼'이 될 것인가 '사냥감'이 될 것인가의 기치를 내건 첩보영화기도 하다.

안기부 해외팀 박평호 역할을 맡은 배우 이정재는 극 후반부에 극한 고문 끝에 풀려나게 된 대학생 유정에게 "지금 당장 경남 남해로 가는 버스를 타. 거기 가면 '금산 보리암'이라는 절이 있어. 남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곳에서 절대 밖으로 나오지마"라고 말한다. 이어지는 남해군의 지형적 특징이기도 한 구불구불한 해안길. 직접적인 보리암 전경이 나오지 않았어도 영화를 본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오롯이 느낄 수 있다.

경남 남해라는 곳이 지극히 안전한 곳이며, 그 중에서도 3대 기도처 중 하나이자 MZ세대의 이색 인증샷으로도 유명한 '금산 보리암'은 의심과 경계라는 폭력이 가닿기 어려운 관세음보살 성지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영화 〈헌트〉의 포스터.

탕웨이가 한 인터뷰에서 남해 막걸리를 언급하고 있다.

박해일의 〈한산〉에 이어
김윤석의 〈노량〉도 개봉 앞둬

한국에서 성웅이란 칭송을 받는 건 이순신 장군뿐이다.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중 2편인 박해일이 연기한 '선비적' 면모의 이순신을 묵직하게 담아낸,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면서 다시금 남해안 일대로 관심이 고취되고 있다.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는 박해일이 연기한 이순신 장군의 다음 행보인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또한 최근 조심스레 개봉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베테랑 배우 김윤석이 보여줄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어떠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3부작의 대미를 장식할 영화 〈노량〉은 촬영을 마치고 후반작업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해 11월 중 개봉 예정이다.

조영호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박해일과 탕웨이가 반한 남해, 〈한산〉을 통한 이순신의 재조명, 화제의 인기작 〈헌트〉 속 안전한 금산 보리암까지, 최근 한국 대표 영화들에서 '남해'가 뜨고 있다"며 "'남해', '이순신', '노량' 등 이런 키워드들이 이어지고 덩달아 이순신순국공원 또한 지난해 대비 관광객 수가 대폭 늘어난 만큼 꽃섬 남해와 이순신의 숨결을 함께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있는 상품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남해관광문화재단
정리 전병권 기자 nhsd@hanmail.net